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행위인 성시간을 매주 금요일 미사 후 거행합니다.

- 6월 19일 (예수성심 안에 있는 우리)

◆ 예비자 교리 개강 안내

- 교리기간: 6/28-8/15 (매주 금, 토 저녁 6:30)
- 신청방법: 6/21 주일 미사 후 신청서 배부
- 담당자: 이호근 라파엘 형제님

◆ 첫영성체 가정 교리 안내

- 교리기간: 7/4-8/22
- 신청방법: 주일 미사후 이호근 라파엘 형제님께
- 부모 첫모임: 6/28 주일 미사 후 성당
- 첫영성체: 8/23 일 주일 미사 중

◆ 북미주 대구대교구 사제 피정 및 연수

- 일시: 6/22(월)-6/26(금)
- 장소: 캐나다 켈거리
- * 본당신부님께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6/26 (금)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성모회 모임

- 일시: 6월 21일(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황석두 구역모임

- 일시: 6월 20일(토) 오후 5시
- 장소: Highbanks Park
Big Meadows Picnic Area (614) 406-0488

◆ 구역별 가정면담이 모두 끝났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구역장님들과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주위에 새로 오신 교우들이 있으면, 신부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 준비 봉사자

- 6월 14일: 안유신 6월 21일: 김정일

◆ 6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효임 구역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1,20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무금: 김도균 김미영 김태형 김한식 박귀영 안유신 여정희 연도홍 윤형석 이석찬 이진학 이현정 정동완 최규선 최예리 최일성

- BAA: 정동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38.00
교 무 금	\$1,846.83
BAA	\$300.00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June 14, 2009



<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

14세기, 프레스코, 피르메 박물관, 카파도키아, 터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탈출기 24,3-8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화답송



제 2 독서 히브리서 9,11-15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4,12-16.22-26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423단 33명
이호영	180단 2명	21,187단 141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180단 2명	2/22/04 - 6/7/09 (276주)

☞ 총누계: 215,310단 12,775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6월 14일	6월 21일
해설자	박귀영	김오경
독서/봉헌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증거자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339 ♪ 봉헌: 332
 ♪ 성체: 182 186 ♪ 파견: 208

“... 내 방이 어디 있느냐?”

구요비 음 신부 | 프라도회 한국책임

아주 경건하고 독실한 개신교 형제들 중에 가톨릭의 혼인 미사나 장례 미사에 참여하였다가 ‘신자 아닌 분들은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말을 들으며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한 개신교 신학자께서는 ‘성체성사는 칼과 총탄보다도 강합니다’라고 하였다.

미사 예식 중에 집전자인 사제만이 개인적으로 바치는 기도들이 있다. 예를준비 때에 사제는 포도주에 물을 한 방울 섞으며 ‘이 물과 술의 신비로 우리도 우리의 비천한 인성(人性)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참여케 하소서!’하고 속으로 기원한다. 사실 내게는 이 순간이 미사 중에 가장 행복한 때이다! 하찮은 물질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를 이룬다는 신앙 고백은 이렇게 우리 인간성(人性)이 하느님의 신성(神性)으로 변용(變容)될 수 있다는 희망뿐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 자체의 진보와 변모로 우리의 시야를 열어준다.

신토불이(身土不二)가 말해주듯 어쩌면 인간의 몸과 정신도 그가 태어난 땅의 소출을 섭생할 때에 최상에 이를 수 있다. 이렇듯 하느님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살 때에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나날이 성장해 간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천사의 양식 (Panis Angelicus), 신령한 음식이라고 노래하는 것이다.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몸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말하자면 일종의 ‘핵분열’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원리가 창조 안에 도입된다. 이 변화는 온 존재의 핵심에 파고들어 실재를 변화시키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기까지 (1코린 15,28)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한다 (사랑의 성사 p.32).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영성체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수동성에 머물러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 19)’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행위에 우리를 끌어들이신다. 그러기에 당신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봉헌물은 이 세상의 성장, 우주 만물의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성장 뿐이다 (떼이야르드샤르댕).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익명의 사람이 제공하는 큰 이층 방에서 거행되었다고 전한다 (15절). 예수님은 이 집 주인에게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방이 어디 있느냐? (14절)’하고 물으신다. 이 부유한 주인은 기꺼이 자신의 제일 큰 방을 내어 드린다. 이 주인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개방하고 주님과 제자들을 영접하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22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상통한다. 예수님의 자기증여, 즉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내어주심을 닮고 있다. 이 자기 증여의 텅 빈 공간 안에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묵시 3,20).